

서울특별시 성동구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7. 6. 22.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성동구청장

나. 제출일자: 2017. 5. 25.

다. 회부일자: 2017. 5. 26.(의안번호: 1120)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으로 주변 공간환경과 어우러져 특색있는 지역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자 붉은벽돌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붉은벽돌건축물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안 제1조 ~ 제5조)

나. 붉은벽돌건축물 등록, 등록취소, 적용의 완화 (안 제6조 ~ 제9조)

다. 붉은벽돌건축물의 건축 등의 비용지원 (안 제10조 ~ 제1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16조 ~ 제18조)

마. 예산의 운용계획 및 시설물 관리 (안 제19조 ~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세부내용 별첨

- 1) 「지방자치법」
- 2) 「지방재정법」
- 3) 「건축법」
- 4)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 「서울특별시 한옥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7) 「행정절차법」

나. 예산조치: 서울특별시 보조금으로 집행(비용추계서, 별첨)

다. 합 의: 성동구 지속가능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7. 4. 27. ~ 5. 17.) 결과, 별첨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반영(조문추가, 문구추가)
 - 개선의견: 위원에 대한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필요. 위탁할 사무를 시설물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고, 수탁 기관에 대해서도 구체적 명시 필요
 - 반영내용: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 및 제20조(사무의 위탁) 문구추가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미반영
 - 개선의견: 위원회 구성 관련조항 성별 균형 고려 문구 정비
 - 미반영: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기는 하나, 그 기능을 당해 조례 제15조에 규정에 따라 건축법 제4조,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5조에 의거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축위원회에 대행하게 한 사항임. 추후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시 적극 반영할 예정임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성동구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붉은 벽돌건축물의 보전으로 주변 공간환경과 어우러져 특색있는 지역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붉은벽돌 건축물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것으로 20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 제3조에서는

-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 ~ 제8조에서는

- 붉은벽돌건축물의 등록, 등록유효기간, 등록의 취소를 규정하였음.

안 제11조 ~ 제13조에서는

- 붉은벽돌건축물 건축 등의 비용지원, 지원신청 및 지급시기, 지원결정의 취소 및 환수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 제17조에서는

-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18조 ~ 제20조에서는

- 기금의 설치·운용, 예산의 운용계획 제출, 사무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음.

- 세계적인 유산으로 등록된 많은 건축물 중 붉은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이 다수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붉은 벽돌의 사용은 1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서기 700년경 중국 산둥성에 있었던 신라방, 백제 성왕 시대 일본 호류사 주변 부속건물, 고려 태조 때 설치한 빈민구제기관인 흑창 등이 적벽돌로 지어졌다는 기록이 있음.

- 근대에도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건축물이 붉은벽돌로 지어졌으나, 대부분 사라지고 회색 일변도의 콘크리트 건축물이 도심에 채움으로써 따뜻한 느낌과 역사적 연륜을 느끼게 하는 붉은벽돌에 대한 평가가 재조명되고 있음.
최근 북촌관광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백인제 가옥’과 2003년 준공한 ‘강남교보빌딩’의 경우가 이를 방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구에도 1908년 준공된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과 종교시설 등이 붉은벽돌로 지어져 보존되어지고 있고, 특히 성수동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많은 공장이나 주택이 붉은벽돌로 형성되어 있으며, 붉은벽돌 건축물은 역사적으로 산업발전을 상징하고 근대 문화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다 할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에 존재하는 붉은벽돌건축물을 보전하고 건축 및 리모델링 공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안은 특색 있고 상징적인 지역경관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붉은벽돌건축물 보존 및 관리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반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할 소지도 있는 만큼,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